

# 두께는 얇아지고, 밀도는 높아지고

## 500장 안팎의 짧은소설 담은 단행본 잇달아

단행본 소설의 분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90년대 들어 500매 내외의 유럽소설이 번역되면서 국내에 소개된 경장편, 혹은 중장편은 영상시대의 변화된 문학환경을 잘 반영하는 형태다. 아직까지 국내 출판계에 확실히 자리잡은 것은 아니지만, 매니아가 형성하고 있다는 게 출판사의 말이다. 하지만 분량이 적어지는 만큼 내용도 가벼워졌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영상매체와 공존해야 하는 21세기 책의 미래에 대해 일본 편집자들은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고급스러운 책으로 작고 가벼운 책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소설 단행본의 두께가 점차 얇아지는 것도 이런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들어 많이 출간된 짧은 장편소설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

### 프랑스 현대소설 위주로 많이 소개돼

흔히 중편분량인 300매보다는 많고 장편 분량인 1000매보다는 적은 500매 안팎의 짧은 장편을 경(輕)장편, 혹은 중장편이라고 일컫는다. 국내에 짧은 장편이 소개된 것은 현대 프랑스 소설이 번역되면서부터다. 고려원에서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에밀리 엘의 사랑》, 파트릭 모디아노의 《서커스가 지나간다》, 장-필립 투생의 《망설임》·《사진기》, 세바스티앙 자프리오의 《비의 여행자》 등이, 세계사에서 '현대 프랑스소설선'으로 레몽 장의 《책 읽어주는 여자》, 이오네스코의 《외로운 남자》,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 미셸 폴코의 《사형집행관》 등이 소개되면서 짧은 프랑스 소설이 주목받게 됐다.

이후 열림원에서 '프랑스 여성작가 소설선'으로 카롤린 라마르슈의 《개의 날》,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알렉시》·《세 사람》, 마리 르도네의 《장엄호텔》 등 7권을, 책세상에서 지젤 피노의 《황금나비를 탄 소녀》, 아니 에르노의 《아버지의 자리》, 장-자크 피슈테르의 《태양의 가면》을, 열림책들에서 파트릭 쥐스킨트의 《비둘기》·《콘타라베이스》, 카롤린 봉그랑의 《밀줄 긋는 남자》를, 문학동네에서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어제》, 파트릭 모디아노의 《도나 브루터》 등을 펴내면서 짧은 장편분량의 외국소설은 일반 독자

들에게도 익숙해졌다. 이들 소설은 대개 분량이 200매에서 500매 사이고 200면이 넘지 않으며 가격은 5000원대에 머문다.

국내 문학서의 경우엔 1987년 고려원이 최인훈의 《하늘의 다리》를 필두로 '고려원 소설문고' 100권을 펴내면서 중편 분량의 단행본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200매 안팎의 중편을 문고판형에 담은 것이라 단행본의 성격은 강하지 않았다.

짧은 장편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다. 문학동네는 김인숙의 《먼길》을 시작으로 '문학동네 소설2000' 시리즈를 발간했다. 김훈의 《빛살무늬토기의 추억》, 윤대녕의 《추억의 아주 먼 곳》,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으로 이어진 이 시리즈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0~800매 사이의 분량으로 이뤄졌다. 문학동네는 이 시리즈가 "단편의 빛나는 시학과 장편의 웅장한 산문성을 동시에 끌어안음으로써 새로운 소설미학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90년대 들어 국내 문학서 출간도 활발

또 문학과지성사도 가로 13센티미터, 세로 21센티미터 크기의 책 판형을 상정하는 '13/21 소설책'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인성의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 오정희의 《새》, 최시현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송경아의 《테러리스트》 등으로 이뤄진 이 시리즈 역시 중편보다는 길고 장편보다는 짧은 소설이 대부분이다. 97년부터는 현대문학이 여기에 가세해 '새로운 소설선' 시리즈를 내놓았다. 이 시리즈에는 구효서의 《내 목련 한 그루》, 이순원의 《독약 같은 사랑》, 하성란의 《식사의 즐거움》 등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작가정신에서 200매 안팎의 중편분량 단행본 시리즈인 '소설향'을 기획하고 이윤기의 《진홍글씨》, 김지원의 《미친 사랑의 노래》, 윤대녕의 《장미창》 등 7권을 펴낸 바 있고 세계사 역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중이다.

이런 짧은 장편의 등장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다. 문학평론가 하응백씨는 90년대에 짧은 장편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를 여러가



짧은 장편소설의 등장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든 우리 속에서도 책의 형식에서 오히려 새로운 틈새시장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로 본다. 예전과 달리 독자들이 긴 소설을 선호하지 않는 데다 작가들 역시 분량에 자유로운 소설을 쓰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됐는데 그 접합지점이 500매 안팎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런 욕구가 판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국내 문학작품을 제외하곤 대개 초판부수를 넘지 않는다.

세계사의 이경호 주간은 "아직까지 독자들은 가격에 비해 두께가 얇기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다. 300면 분량의 장편소설의 가격이 7000원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 독자들에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또 변형 판형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국판형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다. 이래저래 짧은 장편소설은 국내 출판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형태 때문에 출판시장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 '프랑스 여성작가 소설선'을 기획한 열림원의 정은숙 주간은 책의 형식이 가져오는 특성이 새로운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짧은 분량 안에 치밀한 이야기구조를 펼쳐야 하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장편소설보다 더 문학적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소수를 중심으로 매니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은숙 주간은 그 독자층을 초판 발행부수인 5천부 정도로 잡는다.

작가정신 김미숙 편집장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문학작품을 선보이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소설향 시리즈를 읽는 독자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며 "작가를 중심으로 책을 구입하는 소수 문학독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작가정신은 표지디자인·본문 종이·글자체 등을 다른 단행본과 차별화시켰다.

### 짧은 장편이 처한 두 가지 문제

이들 짧은 장편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독자에게 그 존재를 인식시키는 일이다.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남는다. 이 형태를 어떻게 변화된 출판환경과 잘 접목시키는가가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또 "아무래도 분량이 적기 때문에 과거 1000매 이상의 장편소설에 비해 주제면에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하응백씨의 지적처럼 자칫 분량만을 위한 소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짧은 장편소설이 해결해야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 있다는 게 출판계의 지적이다. 즉 문학적 밀도를 유지한다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짧은 장편을 선호하게 된다는 얘기다.

—김연수 기자